

‘세비지 그랜마’에 청춘들도 존경·찬사

(거침없고 솔직한 할머니)

직설적·재치 만점 수상 소감 신선
정이삭 감독에 존경 표현 ‘탈권위’
“민폐 없이 최선” 프로의 열정 박수

해외 젊은 누리꾼은 ‘세비지 그랜마!’(Savage Granma)라 불렀다. 한국의 젊음은 ‘윤며들다’ 또는 ‘휴먼여정제’ 등 표현으로 애정을 보낸다. 74세 노년의 배우에게 전 세계 젊음이 존경과 찬사를 뒤섞어 열광하듯 환호한 셈이다. 전 세계 최대의 대중적 영화상 수상의 영광에 보내는 박수를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관심이라 할 만하다. 영화 ‘미나리’로 26일(한국시간)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뒤 국내외 젊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Savage Granma…거침없는 할머니

미국 누리꾼은 ‘세비지 그랜마’라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주었다. 또 다른 이는 “수상 소감으로 한 번 더 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칠 것 없이 솔직한 모습에 반한 듯, 외신도 찬사를 보냈다. “시상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뉴욕타임스에 워싱턴포스트는 “최고의 수상 소감”이라 덧붙였다. CNN은 시상식 무대를 “흠뻑했다”면서, 개성 강한 조연을 가리키는 ‘신 스틸러’처럼 ‘쇼 스틸러’라 평했다.

시상자이자 ‘미나리’의 제작자 브래드 피트를 향해 “영화 찍을 때 어디 있었냐”고 직설했다. 또 “두 아들의 일하러 나가라는 잔소리 덕에 엄마가 열심히 일해 상을 받게 됐다”면서 고생한 지난날을 스스로없이 드러냈다. “열등의식에서 시작”한 연기가 “절실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며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고 말한 대목도 같다.

“내 이름을 ‘여여’나 ‘정’이라 부르는 데, 이름을 잘못 부른 분들 모두 용서한다”며 서구권의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재치로 지적하는 센스도 남달랐다.



영화 ‘미나리’로 26일(한국시간)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고 거침없이 내놓은 수상 소감과 지나온 인생에 살아온 절실한 열정이 배경으로 곱힌다. 뉴시스



윤여정이 받은 ‘오스카 스웬그 백’ 윤여정이 받는 ‘선물가방’이 27일(한국시간) 공개됐다. 아카데미 수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스웬그 백’(Oscar Swagbag)이다. 가방에는 숙취를 위한 비타민 관리 요법과 손금 전자담배, 수면 상태를 기록하는 헤어밴드, 지방흡입 시술권, 스웨덴의 고급 리조트인 ‘페이퍼 노스터 호텔’ 숙박권 등이 들어있다. 약 2억3000만원(21만5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회사인 디스팅크티브 애셋(Distinctive Assets)에서 제공한다. 사진출처 | 디스팅크티브 애셋

윤여정, 해외프로젝트 기대만발

‘미나리’ 주역들 향후 행보

정이삭 감독, ‘너의 이름은’ 실사판
스티븐 연, 넷플릭스 10부작시리즈

윤여정이 다시 새로운 행보를 걷는다. 함께 영화 ‘미나리’를 일군 주역들도 제각각 또 다른 무대로 나아간다.

윤여정은 27일 현재 미국에서 영화관 계약자들은 물론 현지의 두 아들을 만나 기쁨을 나누며 휴식 중이다. 5월 초 귀

국할 예정인 그는 이미 해외 프로젝트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3월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 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의 캐나다 촬영을 마쳤다. 일제강점기 이후 재일동포들의 삶을 그린다.

‘파친코’의 수 휴 총괄프로듀서가 할리우드 유력 제작사인 유니버설스튜디오그룹 소속으로서 아시아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기회 중이어서 향후 해외 활동 여부로 기대감을 자아낸다. 이미 얻은 세계적 명성에 출연작 주요 스태프와 맺은 인연이 글로벌 무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영화 ‘미나리’의 주역들. 왼쪽부터 한예리·윤여정·스티븐 연·엘렌 김·정이삭 감독·노엘 조·선민스(미국) | AP·뉴시스

연출자 정이삭 감독은 2016년 일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실사영화를 연출한다. ‘미나리’로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 후보에

●윤며들다…윤여정에 스며들다

연기 인생은 그의 표현대로 “먹고 살려”는 길이었다. 조·단역을 가리지 않았고, 스스로를 두드러지게 내세울 수 없었다. 그만큼 자신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26일 ‘미나리’의 연출자인 40대의 정이삭 감독을 가리켜 “진심을 믿었다. 안목은 중요치 않다.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라면서 “내가 늙은 여우니 감독 만나서 싫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이를 보여준다. “정 감독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고 모두 존중한다. 희망을 봤다”면서 “그 친구에게 존경한다고 했다”는 덧붙임도 나이 어린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탈권위’의 면모를 드러낸다.

tvN ‘윤스테이’에서 이서진·최우식·정유미 등 후배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장면, TV보다 유튜브를 더 친근하게 여기는 ‘1020세대’에게 관련 콘텐츠로 다가가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모습도 ‘꼰대’(권위주의적 어른을 비하하는 속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한다.

●휴먼여정제…카랑카랑한 열정

마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듯한 “어우! 내 정신 좀 봐! 나, 정말” 같은 말투는 허스키한 목소리의 카랑카랑함과 어우러져 그 특유의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는 배우이자 프로페셔널의 열정에 대한 찬사로 이어진다.

26일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 싫으니 까 민폐 안 될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그는 말했다. 뒤이어 “브로드웨이로 가는 길을 묻자 ‘연습’이란 답”이 나왔듯, “오스카 받았다고 김영정이 되는 건 아니니, 평소대로 외우기 힘든 대사를 열심히” 외울 것이다. “그저 내 자신이고 싶다”는 자부심과 열정인 셈이다.

그라는 사이 “최고”가 아닌 ‘최중(最中)’하자며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같이, 동등하게 살자”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파스한 시선을 드러낸다.

“내 이름은 윤여정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올라 상을 받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전망이다.

남우조연상 후보였던 스티븐 연은 7일 신작 ‘메이퀼’을 선보인 데 이어 ‘미나리’의 미국 배급사 A24가 제작하는 드라마 ‘비프(Beef)’에 나선다. ‘워킹메이드’ 시리즈 이후 5년 만의 드라마이다. ‘갯아웃’ 조던 필 감독의 차기작에도 출연한다. 이번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자’ 대니엘 켈루아와 호흡을 맞추기로 해 눈길을 모은다.

‘미나리’ 속 윤여정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호평 받은 한예리는 OCN 새 드라마 ‘홀타운’을 새 무대로 택했다. 1999년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테러범의 동생역을 맡아 연기한다.

윤여수 기자

연예

스포츠동아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11

연예뉴스 HOT 5

BTS, 5월21일 새 영어곡 ‘버터’ 발표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5월21일 오후 1시(이하 한국시간) 새 영어곡 ‘버터’(Butter)를 발표한다. 27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날 새 디지털 싱글 ‘버터’를 전 세계 동시에 내놓는다. ‘버터’는 댄스 팝 기반의 신나는 ‘서머 송’으로 지난해 8월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두 번째 영어 곡이다. 소속사는 “‘버터’가 담긴 실물 음반도 아울러 국내에서 순차적으로 발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또 같은 달 12일과 27일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열리는 ‘2021 브릿어워드’와 ‘2021 아이하트라디오 뮤직어워드’에서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등의 수상 후보에 올랐다.

펜트하우스 시즌3, 6월4일 첫 방송

SBS ‘펜트하우스’의 최종편인 시즌3이 6월4일 첫 방송한다. SBS는 27일 “‘펜트하우스3’이 매주 금요일 주 1회 편성돼 6월4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펜트하우스’는 상류층들이 모여 사는 주상복합아파트 ‘해라펠리스’에서 벌어지는 복수와 치정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지난해 10월 시즌1을 시작해 4월 시즌2를 마쳤다. 최고시청률 29.2%(닐슨코리아)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다. 시즌3은 이지아·유진·김소연·엄기준 등 기존 출연자와 함께 은주환·박호산 등이 합류한다.

이광수, 11년만에 SBS ‘런닝맨’ 하차



이광수

연기자 이광수가 11년간 출연해온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하차한다. 27일 이광수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이광수가 5월24일 녹화를 마지막으로 ‘런닝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해 사고로 부상을 입어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사고 이후부터 유재석·하하 등 멤버들과 제작진, 소속사와 긴 논의 끝에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 또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으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광수의 후임은 미정이다.

송은이·김신영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송은이

김신영

개그우먼 송은이와 김신영이 ‘2021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예능인 부문과 라디오 DJ 부문을 수상했다. 송은이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신영은 2012년부터 9년 동안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를 진행해 최근 ‘한국 PD 대상’ 라디오 진행자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속사인 콘텐츠랩 비보에서 진행하는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 프로젝트를 통해 연달아 음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부터 모든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

7월부터 방송사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편·케이ابلTV 등 유료방송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까지 중간광고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중간광고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개정령안은 30일 공포되고, 광고 관련 사항은 7월1일, 편성 관련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역주행 브레이브걸스, 이젠 정주행

6월 새 콘셉트의 새 앨범 발표
청량한 느낌으로 ‘서머퀸’ 도전

“이젠 정주행!”

차트 역주행 인기로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킨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6월 새 미니 앨범을 내놓는다. 4년 전 발표한 ‘롤린’에 이어 지난해 여름 공개한 ‘운전만 해’까지 음원차트에서 순위 역주행한 브레이브걸스는 현재 앨범의 수록곡 일부를 녹음하는

등 작업에 한창이다.

이들은 ‘서머 퀸’을 콘셉트의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발표 시기인 여름 시즌에 맞춰 시원함과 청량함을 강조한다. ‘서머 퀸’에도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이들은 스포츠동아 인터뷰에서 “이제야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데뷔 직후 섹시 콘셉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량한 이미지에 도전하고 싶다. 다음엔 꼭 제대로 준비해 나오겠다. 팬들이 원하는 이미



브레이브걸스

지와 우리가 원하는 게 맞아떨어진다면 더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이자 인기 프로듀서인 용감한형제가 멤버들의 의견을 수렴해 앨범 전

체 콘셉트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빅뱅의 ‘마지막인사’, 씨스타의 ‘쏘쿨’, 나혼자’, 손담비의 ‘미쳤어’ ‘토요일 밤에’, AOA의 ‘심쿵해’ 등을 만들어 ‘히트곡 제조기’로 불린다. 또 역주행 인기로 브레이브걸스의 이름을 대중에게 확실히 알린 만큼 후속곡을 통해 ‘대세 걸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타이틀곡은 대중성을 더욱 가미했고, 다른 수록곡도 80% 이상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만간 수록곡 작업을 마치고 뮤직비디오와 앨범 재킷 사진 촬영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